

# 사람 잡는 폭염



# 온열질환 속출

숨막히는 폭염 속 광주·전남 온열질환자 124명... 지난해보다 2배 폭증  
전남 가축 1만9396마리 폐사 '비상'... 이번주도 '열돔' 현상 지속될 듯

광주·전남지역에 일주일 넘도록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폭증하고 가축폐사도 속출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당분간 35도 이상 '불볕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온열질환 예방과 가축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보고(5월 20일-7월 27일)된 광주·전남 온열환자수는 총 124명(광주 18명, 전남 106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환자(63명, 광주 20명·전남 43명)에 2배 가까운 수치다.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온열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5% 증가했다.

폭염특보가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광주 7명, 전남 6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공식적으로 온열질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23일 장흥에서 오전부터 밭에 나가 일을 하던 80대 여성 A씨가 숨진채 발견돼 온열질환 사망자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평소 저혈압 등을 앓고 있던 A씨가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밭일을 하던 중 쓰러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가축폐사도 잇따라 농가에 비상에 걸렸다. 전남도는 28일까지 31개 농가에서 총 1만9396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했다. 양계 농가 5곳에서 1만8938마리의 닭이 폐사했으며 오리 농가 1곳에서 112마리가, 돼지 농가 25곳에서 346마리가 폐사했다. 특히 28일 영암군 시종면의 한 돼지농가에서 이날 하루 돼지 100마리가 폐사했다. 이날 영암군의 최고기온은 33.2도를 기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육계나 돼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좁은 축사에서 많은 소를 사육하는 경우 폭염으로 인한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남도는 36억의 예산을 들여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는 등 폭염에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온과 습도에 '일 최고 체감온도'가 치솟으면서 팔팔 끓는 '한중막 무더위'가 이번주에는 한층 더 맹위를 떨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팽창으로 인해 이번주 내내 광주·전남 지역 낮 최고기온 34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로 분포해 무더위가 계속되겠다"고 28일 예보했다.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내리는 소나기가 지속적으로 대기에 수증기를 제공해 높은 습도로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상청은 한반도 대기상층에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 중하층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각각 위치해 지표면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열돔' 현상이 이번주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남쪽 해상에서 제3호 태풍 개미가 밀어올린 열대 수증기가 다량 유입됐고, 뜨거운 태양열

지 더해지면서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강하게 퍼붓는 소나기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편, 28일 광주지역 체감온도 최고기온은 33.9도(실제온도 33.2도)에 달했고, 구례는 36.3도(실제온도 35.5도), 담양은 36.3도(실제온도 33.9도)까지 치솟았다. 기상청은 이날 10시를 기해 장성·광양·장흥·강진 지역에 내리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이로써 여수·목포·신안·진도에는 폭염주의보가, 광주와 전남 18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광주·담양·순천·함평에는 폭염경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를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가 이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서 또...70대 운전자 건물 돌진 "황"

대인시장서...급발진 주장

광주도심 전통시장에서 갑자기 건물을 들이받은 70대 운전자 '급발진'을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 주차장에서 A(73)씨가 몰던 SUV가 시장 내 건물 외벽 기둥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자 A씨도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은 대인시장 1공영주차장 출구를 빠져 나온 직후 맞은편에 있는 2공영주차장 방향으로 돌진했다. A씨 차량은 주차장 내 담벼락을 뚫고 상인회사 무실 건물 기둥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 의뢰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경찰이 또...음주운전하다 차단기 "황"

나주 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나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나주경찰은 나주경찰 수사과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6일 새벽 1시 5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의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 나오다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에 부딪히자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

이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A경위에 대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휴직을 앞두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에도 나주경찰 소속 B경장과 무기계약직 직원(주무관) C씨가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었다. B경장은 정직 1개월, C씨는 해임 처분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양제철 근로자 4명 시설교체 작업 중 전기화상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한 공장에서 작업자 4명이 시설교체 작업 중 전기화상을 입었다. 28일 광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양국가산단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한 공장에서 전기판넬 교체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아크(arc) 현상으로 전기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이들 중 3명은 포스코 정직원이며 1명은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크 현상은 방전의 한 종류로서 전선이 끊어지면서 전기와 공기가 접촉해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다. 작업 당시 흐른 전류는 2만 2000V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캐릭터 인형 보니 신나요 28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일대에서 열린 '제3회 ACCF 애니메이션 모꼬지: 찾아라! 애니메이션 친구들' 행사에서 캐릭터 인형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호남고속철 터널 공사 작업자 낙석 맞아 숨져

중대산업재해 적용 여부 조사

호남고속철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가 낙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무안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께 무안군 망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60)씨가 낙석에 맞아 쓰러졌

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한 후 현장에 진 입했으나 돌과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들어간 동료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널 공사는 국가철도공사가 발주했으며, 터널

을 뚫기 위해 발파 후 포크레인으로 낙석을 견여내고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H빔 등으로 보강작업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을 수사하는 한편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